



물 부족 국가의 대책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역대 현명한 정치지도자는 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여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였다. 1차 산업인 농업이 주 산업이었던 시대에는 해마다 가뭄으로 인한 걱정이 큰 문제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산림녹화사업에 힘써 벌거숭이 산을 없앴으며 전국 4대강 유역에 댐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홍수 피해를 막았으며 우수로를 만들고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해 농업용수를 확보했다. 물 부족으로 모내기를 못 하는 천수답을 없앴으며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쓰기 위해 가정에서는 화장실의 변기 물통에 벽돌을 한 장씩 넣어 벽돌 부피만큼 물을 절약하게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때는 4대 강에 22조 원을 들여 16개의 보를 만들며 물을 저장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 농토는 물 부족이 해결된 전천후(全天候) 농토가 되어 모내기철인 6월에 전국적으로 모내기는 기계를 이용해 거의 끝낸 실정이다. 그러나 논이 아닌 밭작물은 올해 들어 봄철인 3, 4, 5월과 여름철인 6월까지 강수량이 아주 적어 밭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으며 도서지방은 식수난에 비상이 걸렸다.

필자는 고적 근무 때 섬지방인 흥도에 근무 한 바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빗물을 저장해 이용하며 물 절약에 남다른 관심을 두고 생활하고 있어 한 번 사

용한 물은 재활용하게 하고 있었으며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썼다.

올해 들어 강수량이 줄어들어 따라 상수원인 저수지의 물이 바닥나고 있으며 6월 중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있을 때 아껴 쓰자.' 라는 말이 있다. 평소 물 아껴 써서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광주광역시 진월동 거주 서영섭 씨(93세)는 발명가로서 물 절약에 관한 관심을 두고 가정에서 물 절약을 위해 물의 소비가 많은 화장실의 변기 물통 연구를 5년 간하여, 120의 변기 물통에서 40만으로 배설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양변기 물통 물 절약기구를 연구 제작하여 발명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이것을 설치하여 물 절약이 확인된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가정에서 물 절약은 수도로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막대한 예산 절감이 된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 당국은 이러한 물 절약 연구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수차 건의서를 출원했으나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박정희 대통령처럼 물 부족 국가의 해결에 관한 관심을 두고 대책을 세워 서영섭 씨의 물 절약에 관한 연구를 수용하여 실천하고, 정부 차원에서 물 절약 연구로 시급한 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해마다 있는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고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 이미 설치된 4대 강의 여러 댐과 보의 물관리를 국민의 현명한 지혜를 모아 추진했으면 한다.

칼럼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를 아십니까

김경선 담양119안전센터 소방장



2020년의 경우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 시작된 8월 중순부터, 2021년은 폭염 특보가 가장 많이 내렸던 7월 중순에서 8월 초 사이에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했다.

2022년에는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담양소방서는 119구급차와 펌블런스(소방 펌프차와 구급차를 합성)에 생리식염수와 얼음 조각, 정제 소금, 정맥주사 세트 등 폭염 구급 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있다.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 알아보자면, 일사병(열탈진)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몸의 온도가 37~40도까지 상승한 상태를 말한다. 열로 인해 땀을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한 경우 발생하며 주로 두통과 어지러움, 피로감, 무기력감,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열사병은 고온에 노출되어 올라간 몸의 기온이 밖으로 발산되지 못하는 등 우리 몸의 체온조절중추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인체의 체온조절중추가 기능

기고

을 하지 못하면, 신체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고, 또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질, 시력 장애나 피부 붉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치명적일 수 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서늘한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 등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119에 신고하고,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마시게 하거나 빠르게 얼을 내리기 위해 몸에 물을 뿌려주거나 젖은 수건, 얼음 등으로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더운 여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낄씨 등을 확인하여 한낮(12~16시)에는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등의 야외 활동을 자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필요

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7월 12일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보행자 보호와 운전자를 위하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사망자 41,784명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17,029명으로 약 40%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하게 되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 한 도로로 차량 및 일시 정지 등의 주의의무가 부여되고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다양한 색상과 무늬 등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안전표지 등의 표시를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불이행 시 최대 9만원의 범칙금 또는 10점의 벌점이 부여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평소 안전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중간 전달책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전달책이 현장에서 바로 검거된다면 회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만이 최선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대출 광고는 보이스피싱의 심해야 한다. 특히 대출을 받자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가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반드시 전화로 송금요청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눌러서 설치하라는 링크는 절대로 눌러서는 안된다. 이러한 링크를 누르지 않으므로써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막아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시티즌 코난'이라는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나 설치하여 범죄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의심'만이 예방법

채정목 여수경찰서 경사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해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982건으로 2020년 3만1681건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지만 피해금액은 2020년 7000억 대에 약 1% 증가한 7744억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기 때문이다. 어눌하고 어색한 한국어로 전화를 거는 방법은 옛말이다. 이제는 말투도 점점 정교해지고 실제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이름까지 도용해 피해를 속이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며 새로 대출 받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직접 받아 대신 갚아주겠다는 '상환 대출 빚자 대면 편취'가 유행하고 있다. 통장 개설 절차가 어려워지고 30분 지연 인출, 계좌 지급 정지 등 과거에 사용했던 '계좌이체형' 수법에 대한 예방책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범들이 수법을 바꾼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고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